

토끼의 세균성 질병

원 송 대*

실험동물로서 토끼를 사육하는데 어려운점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토끼질병 가운데 세균에 의해 자연발생하는 질병을 추려서 그 증상과 치료대책을 간단히 논하였다.

1. 파스튜레라병 (Pasteurellosis)

토끼의 파스튜레라 병은 *Pasteurella multocida*에 의한 병으로 임상형에는 비성호흡(snuffle), 유행성폐염, 중이염, 결막염, 자궁축농증, 고환염, 농양 등으로 나타난다.

(1) 비성호흡 (Snuffles)

스너플의 임상적 특징은 장액성, 점액성 또는 점액농성 콧물이 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부터 나오는 콧물이 자극하여 비공을 앞다리로 문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토끼의 피부는 습하고 엉켜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상호흡으로서 기침과 재채기를 들 수 있다. 이 병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P. multocida*가 없는 종토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예로 번식가토의 제왕절개 분만과 인공포유를 통해 사육하는 것이나 우리의 실정으로는 어렵다.

이병에 대한 치료 약제로서는 40만단위 페니시린과 0.5g의 스트렙트 마이신을 합제하여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sulfaquinolone 225g을 사료 1톤에 첨가하여 급여했던 snuffle과 폐염치료에 효과있다는 보고도

*연암축산전문대학

있다.

(2) 유행성 폐염 (Enzootic pneumonia)

토끼에서 폐염의 임상증상은 자연발생예에서는 관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토끼는 운동 기회가 없으므로 호흡곤란의 증세가 동반하지 않고 대부분 폐실질의 병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증상은 식욕부진, 원기소실이 고 전날까지 건강상태였던것이 폐사로 발견되는 수가 보통이다. 치료에서는 snuffle 치료법과 동일하게 다루면된다.

(3) 중이염 (Otitis media)

토끼에서 중이염은 무증상일때도 있으나 대개 斜頸증상이 보통 많다. 그것을 중이염의 결과로 보다는 내이(內耳) 혹은 뇌까지 균이 감염되어 사경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심한경우에는 회전방향으로 누워서 채식곤란과 음수곤란으로 체중감소와 탈수증이 나타난다. 이병의 치료약으로 페니시린제 사용이 효과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항생물질에 의한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4) 생식기 감염 (Genital infection)

토끼에 있어서 생식기 감염증에는 자궁염 즉 자궁축농증이 있고 수컷에는 고환염과 고환상체염이 있다. 급성 감염증에서는 장액성, 점액성 또는 점액농성이 질로부터 분비물이 보인다. 만성 감염증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컷은 수태율의 저하가 보아

고 편측 또는 양측고환의 종대와 경결이 초래된다.

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태율이 낮은 수컷 그리고 교배후 질분비물이 흐르는 암컷은 도태하는 것이 좋겠다. 종토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질 또는 표피(包皮)의 세균학적 검사 후 사용하는 것이 생식기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겠다.

(5) 농양(Abscess)

여러 크기의 피하 종창부에 농양이 보인다. 그러나 내부장기에서 생기는 농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농양발생이 계속되면 패혈증으로 폐사하게 된다.

(6) 결막염(Conjunctivitis)

안검은 약간 종창하고 삼출물로 눈이 닫히고 결막은 발적되어 있다.

치료에는 페니시린이나 크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가 함유한 안과용 연고를 발라주면 좋겠고 snuffle 치료시와 같이 항생제를 주사하여 준다.

2. 야토병(Tularemia)

이병의 감염토끼는 폐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증상을 보기에는 힘들다. 다만 들토끼에서는 식욕부진, 운동실조의 증상을 나타낸다.

야토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므로 공중위생학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토병 발생지역에서 수렵행위는 금하게 되어 있다. 치료약으로서 스트렙토마이신이 효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토끼에서는 이 병을 억제할 만한 약제의 보고는 거의 없다.

3. 괴사균병(Necrobacillosis)

입술, 안면, 다리, 두부 및 경부에 농양과 궤양을 형성하면서 폐사하는 토끼병이 괴사균병이다. 이 때 농양 부위를 개방하면 악취가 풍기고 감염토끼는 체중감소로 결국 죽게된다.

이 병의 감염토끼는 격리사육하고 케이지는 철저히 소독 후 다른 토끼를 입식한다. 초기에는 설파제투여가 효과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으나 일반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도 효과있다. 농양이 클 때는 절개후 옥도제를 바른후 치료한다.

4. 살모넬라병(Salmonellosis)

토끼에서의 살모넬라병은 패혈증과 설사를 동반하여 폐사를 특징으로 하는 병이고 임신토에서는 유산도 일으킨다. 급성에서는 식욕부진, 원기소실, 발열 등이 보이고 하리가 수반하는 수가 많다. 임신토에서 유산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회복하더라도 재 임신이 어렵게 된다.

토끼에서 살모넬라병 치료에 유효한 약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니시린, 스트렙토마이신, 크로람페니콜 등 약제를 토끼에도 사용하고 있다.

5. 티저병(Tyzzler's disease)

임상적 경과와 보통 급성으로 다량의 수양성 하리를 일으키고 후구가 하리변으로 더럽혀져 있는것이 특징이다. 감염토끼는 원기가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탈수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12~48시간 후 폐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중에서 살아 남은 토끼 가운데서도 성장이 억제되어 쓸모없는 토끼가 된다.

이 병에 대한 유효 치료법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몇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테트라사이클린제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한다.

6. 리스테리아병(Listeriosis)

리스트리아 병의 증상은 아주 다양하여 비특이적이다. 채식을 하지 않고 원기가 없으며 체중이 감소하다가 죽는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죽기도 한다. 임신토에서는 유산이 있고 질에서 혈성의 배출물이 나온다. 간혹 중추신경계에 침입하게 되면 사경과 몸이 도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이 병은 토끼에서 드물게 발생하므로 치료상 어떤 시험이 된 보고도 없다. 다만 가축에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인 페니시린과 스트렙토마이신을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뿐이다.

7. 결핵(Tuberculosis)

토끼에서 결핵에 관한 보고는 많으며 증상에 대한 관찰은 식욕부진과 쇠약, 체온상승, 빈혈, 하리, 골격기형 등 보고되었다. 한 보고에서는 심한 척추염과 후구마비가 관찰되었다.

토끼에서 결핵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 또한 결핵예방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우결핵이 토끼에 전파될 수 있으므로 결핵감염우의 접촉을 피하고 결핵감염 토끼는 도태하는 것 뿐이다.

8. 트레포네마병(Treponematosis)

본 병의 초기증상은 외부 생식기와 항문주위에 발적과 부종이 있다. 소수포가 터져 가피가 형성되고 이 가피표면 아래 궤양병소가 형성된다. 만성화 병변부위에 낙설상(落屑狀)으로 되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혜부와 액와부의 임파절이 증창하는 수가 있다.

이 병은 사람의 매독과 같아 페니시린이 효과가 있다. 트레포네마 병의 예방에 주의가 소홀한 것은 아마도 임상적 증상으로 발증하는

것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발증한 것도 잘 치료되기 때문인 것 같다.

9. 포도상구균증(Staphylococcosis)

토끼에서 포도상구균증의 증상은 감염부위와 감염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감염하더라도 발증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나 급성에서는 피부와 피하직 및 유선이종창, 발적과 경변(硬變)이 발생한다. 만성 감염시에는 피하직과 유선에서 농양이 생기고 그 농양은 파동성 종창이 되거나 단단하게 변한다. 대개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은 국소성 및 전신성의 항생물질 투여로 치료가 잘 된다.

10. 가성결핵(Yersinosis)

토끼에서 가성결핵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하리, 수척, 장간막임파절 종창이 보인다. 대개 패혈증을 수반하여 비특이적인 증상이 보이는 것이 보통으로 동시에 발열, 원기소실, 호흡곤란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폐사하게 된다. 이 병에 대한 치료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